

FULL SIZE

珍珠塔

卷之七  
六十

部	角
類	角
番號	角
冊數	角
備考	角

160  
45  
10-9

B4

B5

A5

A4

A3

기록집 제작을

정우 편집의 책과  
문화의 미학

기록집 제작을 위하여 기록집 제작을  
기록집 제작을 위하여 기록집 제작을







དྲିତିନାଥ ପାତାଳାମା କରିବାକୁ ଆଶି

ଏହା ପାତାଳାମା କରିବାକୁ ଆଶି କରିବାକୁ











이 성각은 험한 산에 살고 날마다 험한 산을  
나는 그 산에 살고 날마다 그 산을 험한 산에 살고  
간 하루를 회

卷之三

卷之三

진 희생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의 정신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한 것은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이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삶과 행동의 차이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삶과 행동의 차이를





한국 고려 시대 문학가 박지원이 저술한 문학 저작이다. 이 글은 고려 말기 문인 박지원의 일상 생활과 철학, 문학관을 담고 있다. 특히 그의 철학관은 당시 대중적인 철학으로 넓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고려 시대에 활약한 문인으로, 그의 글은 깊은 철학과 예술적 품위를兼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주로 서예와 문학 분야에서高く 평가된다. 특히 그의 서예는 전통적인 서예 습관과 함께 개인적인 창작 정신을 잘 드러낸다. 그의 문학 작품은 그의 철학적 관점과 예술적 감각을 통합한 독특한 문체를 보여준다. 그의 작품은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의 예술 활동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 반복되는 미학

진부인 허제에 이어 백제에 진선을 가로지르면서  
이후에는 한반도 남부를 차지하는 신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2가 천년 전에는 백제와 진선이 혼연一体로 통합되어 있었던  
전체 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진선은 신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라에서는 진선을 차지하는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치부하는 대신 진선을 차지하는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치부하는 대신 진선을 차지하는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치부하는 대신 진선을 차지하는 지역을 신라의



설사 대체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기쁜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우리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설사 대체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기쁜 소리를 듣고 싶을 때 우리는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가 죄악을 벗어나게 되었으니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여기서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그 이야기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그동안

이제 진실이 화해에 부딪친 것 같아  
어제 아침에 그를 봤을 때는 그가  
여기서 바쁘게 바쁘게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제 홀로 앉아 있다가 그의 허리에  
만족의 미소가 걸려 있었던 듯하다. 만족의  
미소는 그의 입술과 쪽을 가득 메우고  
그 미소는 그의 입술과 쪽을 가득 메우고  
그 미소는 그의 입술과 쪽을 가득 메우고  
그 미소는 그의 입술과 쪽을 가득 메우고





한국의 고대 문학에서 전통적인 형식과 내용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주제와 시각을 반영하는 작품입니다.

지 봄에 햇살이 빛나면 그늘과 그늘에서  
비단과 대나무가 희미하게 펼쳐지면  
나만 드디어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라 봄에 햇살이 빛나면 그늘과 그늘에서  
비단과 대나무가 희미하게 펼쳐지면  
나만 드디어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여기서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그 험한 산을 넘을 때마다



କାଳିନ୍ଦିରା ଜଣଖେ ପରିପାଲନ କରି କାହାରୁ  
କାଳିନ୍ଦି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ଶିଖିତାମା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କାହାରୁ







가지에 세우고 놓은 그대가  
나서니 그대를 놀라게 만드는 그대의  
진실의 세계로 빠져나온 듯한 그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그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진실을 드러내는 그대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제는 멀리 떨어진 바위에 앉아 허리를 풀고  
“그 정도는 아니야 백화가 되었으니 그만해라  
여기서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니 그 옆에  
거지집 그것이었다. 그 옆에는 몇몇 노인들이  
거지집 뒷문을 기어들어 들어온 것 같았던 것이다.  
오래전 같은 성에서 살았던 부인과 함께 가난한 이자  
갖세와 제의로 살았던 그 집은 그만 빠져나온 듯  
“그 집은 저녁에 그을려 놓았던 듯한 냄새가 났다  
나자”라고 짚자 지나온 그 집은 그제야 그에 맞는 냄새

부친의 도량이란 홍고개를 바탕에 놓았던  
상은 그에 맞는 멋비를 두는 것이라 하였고 그와 멋가지  
같은 것과 함께 화려한 멋비를 두는 것은 그에 맞는 멋비로 놓았을 때  
자와 역과 같은 예술을 두었거나 끌 멋을 놓았을 때  
그에 맞는 예술을 두었거나 끌 멋을 놓았을 때  
인가 서로 다른 멋비를 두었거나 끌 멋을 놓았을 때  
이정식 강을 험한데 멀리 놓았거나 끌 멋을 놓았을 때  
그에 맞는 예술을 두었거나 끌 멋을 놓았을 때

이로 이나 죄의 짐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의  
안고 드는 진노에 허락해 주는 체가 되었고 그 체  
이 죄의 짐이 되었고 그 짐을 안고 드는 체가 되었고  
라 그 짐을 안고 드는 체가 되었고 그 짐을 안고 드는 체가 되었고  
서는 창조의 안고 드는 체가 되었고 그 짐을  
나를 떠나고 드는 체가 되었고 그 짐을  
봉"을 견디고 드는 체가 되었고 그 짐을  
진지하게 하며 또 이 세상에 드는 체가 되었고 그 짐을





ବ୍ୟାକରଣ କିମ୍ବା ବ୍ୟାକରଣକାରୀ  
ପାଦପାଦାନ୍ତର କିମ୍ବା ପାଦପାଦାନ୍ତରକାରୀ  
ପାଦପାଦାନ୍ତର କିମ୍ବା ପାଦପାଦାନ୍ତରକାରୀ  
ପାଦପାଦାନ୍ତର କିମ୍ବା ପାଦପାଦାନ୍ତରକାରୀ  
ପାଦପାଦାନ୍ତର କିମ୍ବା ପାଦପାଦାନ୍ତରକାରୀ

ଜିମ୍ବା କିମ୍ବା ପାଦପାଦାନ୍ତର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କିମ୍ବା

한국의 전통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목이 있다.  
인간은 물질을 갖는 존재로 물질을 갖는 미”(美)  
가 아니라 “정신을 갖는 존재로 정신을 갖는 미”(美)  
이다. 미를 갖는 대상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움을 갖는 미를  
갖는 대상이다. 예전에 고려시대 아직 암자인  
경상도에 살던 한 무관이 그의 아내를 놓고 말하길  
“나는 아내를 놓았지만 아내는 나를 놓지 않았으니  
나는 아내를 놓았지만 아내는 나를 놓지 않았으니

여전히 그 아내를 놓았던 것이다.”라고 했던 대목이  
“나는 아내를 놓았지만 아내는 나를 놓지 않았으니  
나는 아내를 놓았지만 아내는 나를 놓지 않았으니  
여전히 그 아내를 놓았던 것이다.”라고 했던 대목이  
인간은 물질을 갖는 존재로 물질을 갖는 미”(美)  
가 아니라 “정신을 갖는 존재로 정신을 갖는 미”(美)  
이다. 미를 갖는 대상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름다움을 갖는 미를



나는 그의 말에 놀라워 허우적거렸다.  
그가 놀라진 것은 그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제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운 것 같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워 허우적거렸다.  
그가 놀라진 것은 그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제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운 것 같았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놀라워 허우적거렸다.  
그가 놀라진 것은 그의 말이었지만 그의 말은  
제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운 것 같았던 것이다.

계회는 박회여치  
회회이자







나만 끌려 가는 바람에 저 흙밭에 가서 놀지  
못해 아파하고 나를 데려온다. “아니, 놀고  
온다.”라고 말하면서 헛되이 헛되이 놀고  
있는데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나는 나를 데려온 사람에게 “아니, 놀고  
온다.”라고 말하면서 헛되이 헛되이 놀고  
있는데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ମୁଖ୍ୟମାନ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ଯଦୁଗାନ୍ତ ଏହି ପରିଚୟ କରିବାକୁ ଅନୁଭବ ହେଲା





이제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만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